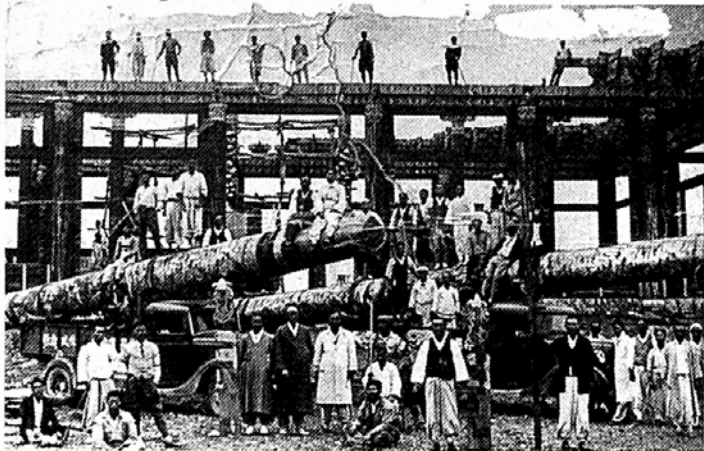


# “교육·포교·복지 등 내실 다질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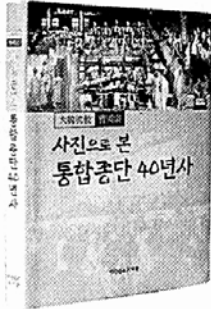
## 조계종 통합종단 40주년 기념법회-세미나

###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발간



1937년 현재 조계사의 건축공사 장면. 조계사의 당시 명칭은 태고사로, 태고사는 한국불교 통일을 목적으로 한 총본산건설의 일환으로 창건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은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교육원장 무비, 포교원장 도영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종단 출범 40주년 기념법회 및 사진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정대스님은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통합종단은 일제의 식민 잔재를 일소하고 우리 불교와



민족 전통의 올바른 계승발전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탄생했다”며 “지금까지 거둔 도제양성, 역경, 포교 등 종단 3대 사업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와 민족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에앞서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의 주역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인물, 사건 등 종단의 업적을 기념할 만한 사진을 수록해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기록한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를 10일 발간했다. 사진집에는 원흥사(1902년)-각황사

(1910년)-조선불교교무원 청사(1920년)-태고사 건축공사(1937년)-현 총무원 청사 기공식(1971년) 등 근대 이후 총본산(총무원) 역할을 했던 건물의 변화상이 담겨 있다.

또한 1947년 봉암사결사의 정신과 규칙을 담고 있는 공주규약문서,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종정 현암스님의 교시,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종정 효봉스님 교시, 1954년 태고사의 간판이 비구승들에 의해 조계사로 바뀌는 장면 등 중요 문서자료 및 사진 1000여장이 수록돼 있다.

사진집은 ‘한국근대불교의 전개와 조계종’ (1876-1962)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출범’ (1962-1971) ‘종단의 시련, 불교 중흥’ (1971-1980) ‘종단의 민주화, 불교의 사회화’ (1981-1993) ‘개혁종단의 성립과 발전’ (1994-2002) 등 통합종단 40년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중요 연표도 정리해 놓고 있다.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도 8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본지 363호 9면 열린마당 기사 참조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조계종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3대 종책사업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혁신 △통합종단 성립과정에서 승단의 수좌중심 재판문제 등 부정적 측면 성찰 △총무원장의 전문·독립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포교, 사회, 문화, 복지, 학술 등 모든 분야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현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 “대학원 설립·면학분위기 조성”

## 중앙승가대 제11대 총동문회장 원행스님



“중문 및 교계 중진스님들과 논의해 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승가학문전당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장학특위를 확대하는 등의 재학생 면학 풍토도 개선해나갈 것이다. 또한 동문회 발전 및 중앙승가대인의 단합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원이 1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각처에서 수행과 포교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와 동문회에 관심을 쏟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앙승가대의 발전은 곧 종단과 불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는 50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김포화사에서 제 22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총동문회장에 현 회장인 원행스님(무주 안국사 주지)을 재선출했다. 원행스님은

## 학교특성화에 종단투자 절실

유효표 521표중 264표를 얻어 257표를 획득한 원정스님(장원 성주사 주지)에게 7표차의 신승을 거뒀다. 원행스님에게 당선소감 및 총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근소한 차이로 11대 총동문회장에 당선됐는데.

“우선 성원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정스님을 지지한 분들의 뜻을 깊이 새기고, 학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는 김포화사가 제자리를 잡은 만큼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년간의 새 임기가 시작된다. 학교와 총동문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렇게 되도록 최장이 앞장서겠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종단의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중앙승가대는 재학생이나 동문들만의 학교가 아닌 종단의 소중한 교육기관이다. 바퀴 말하면 조계종단 사부대중 모두의 것이며, 바로 이같은 인식이 널리 자리잡는다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중앙승가대가 정규대학인 만큼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종단에서는 학술 분야 등 중앙승가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 특성화’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명우 기자

# “전통사찰 생태·문화적 가치 높다”

## ‘국립공원내 사찰 공익적 가치 연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찰관리정책과 계획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5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불국사 해인사 화엄사 등은 문화유산 가치 항목에서 각각 4.4점 4.3점 4점을 얻어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사찰로 평가됐다. 이들 사찰들은 관광 가치에서도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내장사의 경우 문화적 가치는 3.8점으로 네 번째 순위를 차지했지만 관광유산 가치가 3.9점을 얻어 관광유산 가치가 높은 사찰로 판명됐다. 또한 천은사의 경우에는 생태유산 가치 3.9점을 얻어 관광이나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다른 사찰들과 비교가

됐다. 반면에 불국사 법주사 등 관광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찰들은 종교적 가치 항목에서 ‘그저 그렇다’나 ‘잘 모르겠다’ 수준에 불과한 약 3.4점 3.4점을 얻어 종교

### 문화유산가치

5점 만점 ... 불국사 4.4, 해인사 4.3, 화엄사 4

### ‘관람료 왜 받나’ 거부감 불식시킬 방증 자료

종교적 가치 낮게 평가... 사하촌 정화 시급

국립공원 정책, 사찰환경보존책으로 전환해야

적 가치가 낮은 전통사찰로 분류됐고, 법보사찰인 해인사도 종교가치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낮았다.

■전통사찰 관람료 낼 의사 있어  
사람 관람료를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는 가치 평가법에 의한 최대지불의 사금액(WTP)을 통해 산출했다. 관람객들은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해인사 13066원, 불국사 9857원, 내장사 8471원, 신홍사 7313원, 화엄사 6930원, 법주사 6758원, 천은사 6197원을 낼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람 관광만을 목적으로 한 전통사찰 방문객들도 해인사 관람의 경우 9767원을, 불국사 8668원 내장사 6055원을 낼 의사

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객들은 사찰 주변의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해인사 11343원, 내장사 8344원, 불국사 7284원 등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의 녹지지연 8~9등급  
전통사찰의 경내지 삼림은 모두 양호한 식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찰재산으로 주변의 산지가 편입되면서 자연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 경내지 삼림상태를 평가해보면 천은사의 녹지지연등급 8~9등급, 화엄사의 녹지지연등급 8등급, 해인사의 녹지지연등급 9등급, 법주사의 녹지지연등급 8~9등급, 내장사의 녹지지연등급 8~9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장사 경내지에는 천연기념물인 굴거리나무 자생지, 비자나무 자생지 등이 있어서 장기적 삼림계획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천은사, 화엄사, 해인사, 불국사 등의 사찰 경내지에는 대개 소나무 군집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장사의 사찰경내지에는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또한 신홍사 경우에는 소나무 군집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점차적으로 신갈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군집이 확산되는 것이 관찰됐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친화 한 문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동이에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집 평생기도처 개원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 정진으로 마음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 요양원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건물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상구보리 화하중생”이라 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복지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입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광원 조감도

### 위치 및 시설개요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상: 만 70세이상 부부 또는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은 모든분(남녀불문) 노환스님.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은신분
- ◆정원: 약 30명
- ◆부대시설: 상담실, 진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미용실, 법당, 식당, 일광욕실, 정원, 산책로등
- ◆연락처: 전화 031) 759-5310, 5320 FAX 031) 759-4209 E-mail: jkwkey@kornet.net

개원예정일 2002년 4월 (일자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을 자광원” (노인요양시설)